|  |  |
| --- | --- |
| 지문 | 단어수 |
| A | 242 |
| B | 286 |
| C | 281 |
| D | 255 |
| E | 257 |
| F | 264 |
| G | 262 |
| H | 230 |
| I | 281 |
| J | 269 |
| K | 273 |
| L | 274 |
| N | 234 |
| M | 269 |
| O | 268 |
| P | 235 |
| **평균** | **261.25** |
|  |  |
| 예비지문 |  |
| Q | 309 |
| R | 215 |
| S | 229 |

**지문 - A** 242

숲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 자원으로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환경 자원으로서, 또 인간의 심성을 어루만져 주는 문화 자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어렵게 녹화한 우리의 숲은 아직 이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숲이 대부분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로 이루어졌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며, 숲을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아니면 여가 공간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바로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진실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런 이 숲을 가꾸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학자들은 솎아주기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숲을 적절하게 가꾸어 주기만 하면, 그 숲은 자연 상태로 방치했을 때보다 경제적 기능은 물론이고 환경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 가꾸어 준 숲은 그렇지 않은 숲보다도 부피 생장을 2~3배나 더 빨리 하여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고,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산 자원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생산하는 이 자연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녹화가 되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를 계속하여 더욱 잘 가꾸어야 한다.

앞선 세대가 1백억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숲이 경제와 환경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자연 환경을 지탱하는 생태적 중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관심과 애정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헐벗은 국토를 녹화한, 의지의 한민족은 세계를 향해 그 자존심을 더욱 활짝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숲의 가치, 다음 세대를 위해 가꾸어야 한다.”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숲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숲은 경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숲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주는 환경 자원이다.**

**3. 숲은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B** 286

인간의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대뇌 겉질이 영역마다 담당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 중에서도 대뇌의 가장 바깥 구조물인 대뇌 겉질에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통해 전두엽에는 판단, 성격, 운동 조절 등의 기능이 있으며,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은 귀, 눈, 피부 등의 감각 기관으로부터 수용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유사한 과학적 발견이 이어지면서, 인간의 뇌는 영역별로 나누어 맡는 기능이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대뇌 겉질이 나누어 맡는 기능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환경에 둘러 싸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경험에 따라 각 영역이 맡는 기능이 달라지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빛을 완전히 차단한 공간에 실험 참여자들을 머물게 하고 손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했는데, 이틀이 지나자 시각 정보 처리를 맡았던 뇌 영역이 손에서 오는 촉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의 경험으로 인해 실험 참여자들의 뇌 영역이 맡은 기능이 변화된 것이다.

경험은 대뇌 겉질의 기능만이 아니라 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인간의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떠올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다. 공간 구조의 기억과 회상에 관여하는 해마로 인해 우리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집으로 가는 길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해마의 크기가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과학자들은 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의 뇌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이를 발견했다. 대도시의 교통 체증을 피해 시시때때로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하는 택시 기사의 해마는, 정해진 노선대로 운전해야 하는 버스 기사의 해마보다 그 크기가 더 컸다. 해마의 크기는 택시 운전 경력과 비례했다. 대도시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택시 기사의 경험이 뇌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평소에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주의 집중의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 크고, 현악기 연주를 연습하는 사람은 현의 음색과 왼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트럼펫 연주를 연습하는 사람은 금속성 소리에 반응하는 뇌 영역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더 크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뇌” “대뇌 겉질”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인간의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떠올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A. 1. 두정엽 2. 측두엽 3. 해마**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C** 281

콘서트홀에서 감미로운 노래와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휩싸이는 경험은 정말 매력적이다. 하지만 모든 콘서트홀이 늘 최고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와 가수 외에도 콘서트홀의 다양한 요소들이 공연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연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음이 지속되는 잔향 시간이다. 잔향 시간은 음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에서 일백만 분의 일만큼의 에너지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콘서트홀 종류마다 알맞은 잔향 시간이 다르다.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은 청중들이 풍성하고 웅장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잔향 시간을 1.6~2.2초로 길게 설계하고, 오페라 전용 콘서트홀은 이보다는 소리가 덜 울려야 청중들이 대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잔향 시간을 1.3~1.8초로 짧게 만든다. 예술의 전당에서, 주로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콘서트홀은 잔향 시간이 2.1초에 달하고, 오페라를 공연하는 콘서트홀은 잔향 시간이 1.3~1.5초이다. 그러면 콘서트홀의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콘서트홀의 크기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잔향 시간은 콘서트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은 콘서트홀에서는 무대에서 나가는 소리가 벽에 부딪히기까지의 시간이 짧다. 따라서 소리가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므로 소리 에너지가 빨리 줄어들어 잔향 시간이 짧아진다. 큰 콘서트홀은 작은 콘서트홀에 비해 무대에서 나가는 소리가 벽에 부딪히기까지의 시간이 길다. 따라서 소리가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적으므로 소리 에너지가 천천히 줄어들어 잔향 시간이 길어진다.

콘서트홀의 재료를 고려하여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콘서트홀의 벽면과 바닥, 객석 등에 쓰이는 재료가 잔향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밀도가 낮고 통기성이 좋은 합성섬유와 같은 푹신한 재료는 소리를 잘 흡수하므로 흡음재로 쓰인다. 반면 돌이나 두꺼운 합판은 소리를 거의 흡수하지 않고 튕겨 내기 때문에 반사재로 쓰인다. 흡음재와 반사재를 적절히 조합하면 원하는 잔향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무대 바닥이나 벽은 반사재를 붙여 반사의 정도를 조절한다. 객석과 주변의 벽은 흡음재를 사용하여 소리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콘서트홀의 잔향 시간 조절” (등 유사한 답변)**

**Q.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재료로 밀도가 낮고 통기성이 좋은 합성섬유와 같은 푹신한 재료는 무엇인가?**

**A. 1. 흡음재 2. 반사재 3. 조절재**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D** 255

최근 20여 년 동안 자유무역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모든 물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유무역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식량도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대로 놓아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현재 식량 문제의 주도권은 일부 거대 곡물회사들이 쥐고 있다. 이들 거대 곡물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구는 약 1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에 불과하다. 공급 능력 대비 수요를 고려하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식량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이 세계 곡물 거래량의 80%를 넘는 곡물을 거래하고 있으며, 최대치의 이윤을 얻기 위해 곡물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곡물 파동 당시 식량 가격이 마구 치솟아 수많은 빈민들이 굶주림으로 허덕였을 때 오히려 이 회사들의 이익은 40% 이상 높아졌다.

식량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품목이다. 자유무역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자유무역의 상품으로 던져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개발 국가에는 자유무역에 동참할 것을, 그래서 그 국가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요구 하면서도 자국의 경제를 운용할 때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불행한 국민이 없도록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최소 생존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 한쪽에서는 살을 많이 빼면 25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 1달러가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식량 문제를 자유무역의 논리로만 다루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생존의 기본 요건인 식량 문제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식량을 자유무역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언급한 수많은 빈민들이 굶주린 세계 곡물 파동의 해당 연도는 언제인가?**

**1. 2008**

**2. 2010**

**3. 2012**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E** 257

우리나라에서 지렁이는 소나 돼지처럼 법으로 정한 가축 이다. 가축이란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지렁이는 어떤 이유에서 가축이 되었을까?

첫째, 농업을 위해 지렁이가 쓰인다. 지렁이는 소화 과정에서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하고 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질소,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등이 포함된 분변토를 배출한다. 이 분변토를 사용하면 화학 비료를 적게 쓸 수 있어서 땅의 산성화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지렁이는 표면과 땅속을 오가면서 지표면의 물질과 땅속의 흙을 순환시킨다. 이때 땅속에 수 많은 미세한 굴들이 상하좌우로 형성되고 공극이 많아진다. 공극은 식물의 뿌리가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비가 오면 공극에 빗물이 스며들게 되어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 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환경을 위해 지렁이가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만 7,0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 해 동안 25조 원 정도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면 썩어서 토양과 물이 오염된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대규모의 시설을 지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지렁이가 먹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혐오스러워 보이지만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등 공신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렁이를 농업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규모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렁이의 먹이는 염분 농도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를 많이 먹는 우리 음식 문화에서는 소금기를 낮추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살아 있는 생명인 지렁이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온도는 늘 15∼25도로, 흙의 수분은 20%로 유지해야 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지렁이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해결과 농업에의 쓰임을 고려한다면 지렁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최근 지렁이는 주목받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의 활용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지렁이의 활용”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렁이를 대규모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1. 염분 농도가 낮아야 하는데 우리 음식 문화상 소금기가 높다.**

**2. 국내에 지렁이 개체수가 적다.**

**3. 다른 대규모 처리시설로 충분하다.**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F** 264

학급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상황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가해자-피해자 모델’ . 이 모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괴롭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본다. 개인의 특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서도 개인적인 처방이 중시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선도하고 피해자는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하지만 ‘가해자-피해자 모델’로는 괴롭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급에서 일어난 괴롭힘 상황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방관자가 존재한다. 방관자는 침묵하거나 모르는 척하는데, 이런 행동은 가해자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방관만 하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괴롭힘을 멈출 수 있다. 피해자는 보호를 받게 되고 가해자는 자기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반면 방관자가 무관심 하게 대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면 괴롭힘은 지속된다. 따라서 방관자의 역할이야 말로 학급의 괴롭힘 상황을 해결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방관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학급 내 괴롭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가해자-피해자-방관자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방관하는 행동이 바로 괴롭힘 상황을 유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즉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가해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모델에서 방관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신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급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급의 구성원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역할극이나 회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돕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방관만 하던 소극적인 학생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심리적, 물리적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방관하는 행동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는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않고 나서서 피해자를 도우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학급 환경에서는 더 이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끔 발생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괴롭힘 상황에 대한 접근”**

**Q. 학급에서 괴롭힘 상황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인 ‘가해자-피해자 모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제시된 새로운 모델인 이것은 무엇인가?**

**1. ‘가해자-가해자-피해자’**

**2. ‘가해자-피해자-방관자’**

**3. ‘피해자-피해자-방관자’**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G** 262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휴대전화.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작은 전자 제품에는 검은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 아프리카 중부에서는 콜탄이 많이 생산된다. 콜탄은 주석보다 싼 회색 모래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콜탄을 정련하면 나오는 금속 분말 ‘탄탈룸’은 휴대전화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재이다. 탄탈룸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제트엔진, 광섬유 등의 원료로도 널리 쓰이면서 귀하신 몸이 되었다. 전 세계 첨단 기기 시장에서 탄탈룸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자, 불과 몇 달 만에 콜탄 가격이 20배나 오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우선 콜탄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혹사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비는 삽 한 자루 뿐, 그 밖에 사고를 예방 할 아무런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1년에는 갱도 붕괴 사고로 인부 1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콜탄값이 수십 배나 뛰는 것을 본 농부들은 농사짓던 땅을 버리고 광산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쥐꼬리만한 일당 뿐이다.

다음으로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 고릴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국립공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의 마지막 서식지이다.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양의 콜탄이 묻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만 명의 사람 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야생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사냥했다. 이로 인해 고릴라들은 사람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직 멀쩡한 휴대전화를 놔두고 최신형 휴대전화를 기웃거리는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고릴라가 보금자리를 잃고 있다. 그리고 순박한 원주민들은 혹사당하며 살고 있다.

지금 당신이 쓰는 휴대전화는 몇 살이나 되었는가? 우리가 휴대전화를 오랫동안 소중하게 쓰는 일은 단지 통신비를 아끼고 물자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거룩한 일이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휴대전화 원료와 시장 수요, 나아가 생명보호”**

**Q. 휴대전화, 노트북, 제트엔진 등에 원료로 쓰이는 ‘탄탈룸’은 아프리카 중부의 생산되는 ‘이것’을 정련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A. 1. 콜탄 2. 탈륨 3. 렌틸**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H** 230

사람들이 개에게 하는 말에는 일상적인 말과 학습을 시키기 위한 말이 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개에게 말을 걸 때는 높은 톤의 목소리나 감정적인 말투를 쓰고 같은 말을 반복 하는 경우가 많다. 개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독특한 말투를 어떤 심리학자는 ‘강아지말’이라고 이름 붙였다.

반면에 학습을 시키기 위한 말은 간단한 단어로 개에게 의도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때 쓴다. 개가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단어와 특정 사물 또는 행동과의 연결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산책 가자.” 또는 “산책 갈래?” 등으로 말을 건다. 그러면 개는 ‘산책’이라는 단어와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연결하여 기억하게 된다. 단어와 행동을 연결하여 기억하는 능력을 높이려면 온화한 목소리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말을 걸어 주어야 한다.

또한 개에게 단어를 빨리 익히게 하려면 일관된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밥”, “맘마”, “밥 먹자.”, “식사 시간이야.” 등 무엇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다만 한번 결정했으면 항상 같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 모두 같은 단어로 개에게 말을 걸어 준다면 효과는 한층 올라갈 것이다. 개가 그 단어나 문장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방법으로 개가 알아듣는 단어의 수를 늘려 나갈 수 있다.

개는 새로운 단어를 익히면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산책 가고 싶어?”라고 말을 걸면 기쁜듯이 문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공 가져와.”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장난감 상자까지 뛰어가서 공을 찾는다. 따라서 사람이 단어를 말했을 때 나타내는 개의 행동을 통해 개가 그 단어를 학습했는지 못 했는지를 알 수 있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개와 말, 학습”**

**Q. 본 지문에서 개에게 단어를 빨리 익히게 하는 방법으로 주장한 것은?**

**A. 1. 강한 어조의 사용**

**2. 다양한 억양 사용.**

**3. 일관된 표현 사용.**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I** 281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지역 사회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영 행위가 소비자와 지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들은 이윤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업을 점점 불신하게 되었다. 불신감이 커지자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업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한 기업이 망하면 직원들과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업은 정직한 제품을 생산할 책임이 있다. 정직하지 않은 제품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그 지역의 교통망이나 통신망, 물과 공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이윤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섞은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였다. 반면 B사는 창업주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투명하게 경영하고 윤리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지가 좋아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책임 경영 컨설팅 기업인 ‘콘 로퍼’의 ‘기업 시민 정신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가격이 비슷하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기업의 신뢰는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Q. 본 지문은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A.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와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주장한 것은?**

**1.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

**2. 국가적인 이미지를 위해.**

**3. 그 지역의 교통, 통신 등 지역사회에 빛을 지기 때문.**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J** 269

미술에서 ‘프로파일(profile)’은 사람의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킨다.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에 이런 프로파일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파일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발달하였다.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에 정면상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정면상을 그렸지만 그 빈도가 동양보다 낮다.

측면과 정면 중 인물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쪽 일까? 우선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동물들을 그릴 때 정면, 측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먼저 말을 그려 보자.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물고기는 어떤가? 그것도 옆에서 본 이미지이다. 도마뱀을 그려 본다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적인 이미지 면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집트 벽화 중에 귀족 ‘네바문’을 그린 그림 이 있다.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이지만, 이 그림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 혼합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신체 부위에 따라 정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측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양 모두 두 이미지 면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다. 부분 측면상은 사람을 완전히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옆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정면과 측면의 특징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 그에 비해 고대 이집트 벽화는 인간의 두 이미지 면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혼합 형식을 이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인물의 측면을 묘사”**

**Q. 사람을 완전히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옆에서 보는 ‘이것’은 정면과 측면의 특징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 동서양 모두 발달된 ‘이것’은 무엇인가?**

**1. ‘부분 측면상’**

**2. ‘입체 정면상’**

**3. ‘압축 측면상’**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K** 273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은 매우 적다. 유엔 인류발전보고서(2004년)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여성 의원 비율이 45.3%이고, 미 국은 14%, 한국은 5.9%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의 성격 자체가 남성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흔히 정치를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라고 하는데, ‘권력’이나 ‘경쟁’은 여성 보다 남성에게 더 친숙하다. 남학생 간의 잦은 힘겨루기를 떠올려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의 차이이다. 사회가 남자 아이에게는 활동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여자 아이에게는 얌전하게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사회화되는 차이 때문에 여성이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것이다. 셋째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 때문이다. 이미 남성 중심으로 짜인 정치 구조에 여성이 새로 들어가기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면 여성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많은 나라가 한 명의 의원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계속 남성 정치인이 당선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정치를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보면 여성의 정치 참여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치를 나눔과 돌봄, 공존과 조화로 보면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결 쉬워진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경쟁보다는 나눔, 힘보다는 설득이나 조화에 더 가치를 두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를 통해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석 할당제나 후보 할당제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의석 할당제는 의원 수의 일부를 여성의 몫으로 정하는 것 이고 후보 할당제는 의원 수가 아니라 의원이 될 수 있는 후보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나라는 일찍부터 의석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 정치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여성의 정치 참여”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방법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를 도입하는 방법.**

**2.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권력을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닌 나눔과 돌봄으로.**

**3. 제도를 통해 늘리는 방법, 의석 할당제.**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L** 274

동물들은 왜 잠을 잘까? 동물들이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회복설’을 주장한다. 생물은 깨어 있는 동안 몸이나 뇌가 손상되는데, 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에너지 보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동물의 겨울잠이 그러하듯 수면도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몸의 대사를 15퍼센트 정도 낮출 수 있다. 몸무게가 80킬로그램 정도의 사람이 8시간을 잔다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120칼로리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잠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잠을 오래 자는데,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또, 심한 병에 걸리면 아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버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보호 작용일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잠의 모습은 모두 인류가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진화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잠이 환경에 따라 얼마나 잘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로 돌고래를 들 수 있다. 잠을 자고 있는 돌고래의 뇌파를 검사해 보았더니, 한쪽 뇌에는 커다란 진폭의 느린 파장(델타파)이 나타나고, 그 반대쪽 뇌에는 빠른 파장(알파파)이 나타났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돌고래의 양쪽 뇌 모두에서 델타 파장이 나오는 경우는 결코 없다. 즉,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돌고래의 뇌는 꼭 반만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돌고래의 뇌 전체가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는, 돌고래는 수면 중에도 호흡을 하기 위해 간혹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얼룩말이나 기린은 잠을 아주 조금 잔다. 이들은 졸린 상태로 있거나, 잠을 자더라도 동료를 보초병으로 세운 상태에서 잠을 잔다. 그 이유는 사자처럼 무서운 동물이 공격하면 신속히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비해 굴 속에 사는 짐승들은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편한 상태로 오래 잔다. 예컨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굴 속 천장에 매달려 사는 박쥐는 하루에 무려 18시간이나 잠을 잔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동물들이 잠을 자는 이유” (등 유사한 답변)**

**Q. 동물들이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있는데 그 중 ‘이 가설’은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몸의 대사를 15퍼센트 정도 낮출 수 있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가설’은 무엇인가.**

**1. “에너지 회복설”**

**2. “에너지 보존설”**

**3. “에너지 저장설”**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N** 234

사회 방언은 언어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이가 나타난 것인데, 대체로 계층, 세대, 성별, 학력, 직업 등이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방언은 비표준어이기는 하지만, 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표준어도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제정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무’는 ‘무수, 무시, 무우, 무’와 같은 방언 중에서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표준어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와 같은 현상이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인이 그만큼 말을 쉽게 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옛말에서 쓰이던 어휘가 그대로 쓰이는가 하면, 불규칙 용언이 규칙 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옛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준다. 예를 들어, “혼저 옵서예.”라고 할 때에 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을 금방 알 수 있으며, “잘 가입시다.”라고 할 때에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의미로 잘 알아듣는다. 이런 말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그만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끝으로, 방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들어 있어서 민족성과 전통,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신화, 전설, 민담, 민요, 수수께끼, 말놀이 등과 같은 풍부한 구비 문학이 방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 준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사회 방언의 중요한 가치”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 중 ‘방언’이 갖는 중요한 가치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표준어도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다.”**

**2.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다.**

**3. 세계 다른 언어와의 큰 차이점이다.**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M** 269

1876년, 파리의 한 사진관에서 ‘무명 화가, 조각가, 판화가 협회전’이라는 긴 명칭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 출품한 작가들은 모네, 피사로, 시슬레, 드가, 세잔, 르누아르 등인데, 이들을 우리는 ‘인상파’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은 안개가 가시지 않은 한 항구에 해가 뜨면서 밝아 오는 아침 바다의 분위기를 표현한 모네의 그림 ‘해돋이 인상’과 관련이 있다.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린 당시에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작가들을 이상형으로 보고, 이들을 연구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또, 화실 안에서 관념적인 생각에 따라 대상의 고유색, 즉 잎은 초록색, 땅은 갈색, 하늘은 파란색 등으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모네는 화실 안에서 옛날의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모방하듯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답답하고 싫었다. 오히려 야외로 나가 자연을 볼 때마다 그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모네는 이젤과 화판을 들고 밖으로 나와 태양 광선 아래서 자연을 느끼며 그림을 그렸다. 강물이 반짝이고 주변의 자연과 사람들이 생동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려 한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면서 모네는, 각각의 대상물이 일정한 고유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네는 빛에 따라 순간순간 변하는 인상을 그려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생략하고 간략한 터치나 밝은 채색으로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모네의 그림은 아주 밝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게 되었다.

인상파의 이러한 밝고 찬란한 색채의 작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화실 안에서 그려진 우중충한 색채의 풍경에 익숙해 있었고, 그림이 실물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전시회를 보고 혹독한 비난을 하였다.

그러나 인쇄, 사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차츰 화가들은 겉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은 사진과 경쟁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화가들의 느낌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즉, 그림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그림 그 자체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였던 인상파 화가들이 독자적인 화파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인상파와 화가” (등 유사한 답변)**

**Q.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로 안개가 가시지 않은 한 항구에 해가 뜨면서 밝아 오는 아침 바다의 분위기를 표현한 그림 ‘해돋이 인상’을 그린 이 ‘화가’는 누구인가?**

**1. 모네**

**2. 피카소**

**3. 몬드리안**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O** 268

역사라는 것은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되어 뽑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것을 뽑은 사람은 기록을 담당한 사람, 곧 역사가라 할 수 있으며, 뽑힌 사실이란 곧 역사책을 비롯한 각종 기록에 남은 사실들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란 결국 기록에 남은 것이며, 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일식과 월식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역사로서 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다. 금속 활자의 발견은 그 중요성을 안 훗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최초로 발명한 사람과 정확한 연대는 모른 채 고려 말기의 중요한 역사로 추가 기록되었다.

‘지난날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실 중에서 누군가가 기록해 둘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하여 기록한 것이 역사이다.’하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기록해 둘 만한 중요한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기록해 둘 만한 중요한 사실을 가려 내는 사람의 생각과 처지’의 문제이다.

먼저, ‘무엇이 기록해 둘 만한 중요한 문제인가?, 기록해 둘 만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하고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말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역사책에 남아 있는 사실들은 모두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일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고가 될 만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가려 내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는 일식과 월식이 정치를 잘못한 왕이나 관리들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한글 창제의 사실은 조선 시대에 역사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그 시대에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고, 한글은 언문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언문이 국문으로 되었고, 한글 창제의 역사적 의의는 높아져만 갔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역사란 누군가에 의해 중요하다 인정된 것이다.”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역사와 관련된 주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가 더욱 중요하다.**

**2. 역사란 누군가에 의해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되어 뽑힌 것이다.**

**3. 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다.**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지문 – P** 235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을 말한다. 1998년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서남해안 갯벌 면적은 2,393㎢이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2.8%에 해당될 정도이며 규모면에서 세계적이다.

갯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쓸모 없는 땅이 아니다. 갯벌이 수산 자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바를 생산성으로 계산하면 농경지에 비해 3～10배나 된다. 또,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갯벌을 보전해 어업, 수산물 서식지, 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는 쪽이 간척해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3.3배 유리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갯벌은 해양 환경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가진 곳이다.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는 해산물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갯벌이나 염습지에서 생의 일부를 보내는 종(種)들이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어시장에 나오는 전 세계 수산물의 80～90%가 연안의 얕은 바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갯벌은 하천을 따라 흘러 내려온 육지의 오염 물질을 마지막으로 걸러 주는 자연의 콩팥이다. 갯벌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들이 육지에서 온 토사와 부유 물질을 거르고 각종 중금속과 유해 화학 물질을 무해한 형태로 바꾸어 주며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 등을 영양소로 섭취한다.

퇴적물의 조성에 따라 갯벌의 형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질퍽질퍽한 개흙질이 많은 갯벌을 ‘펄갯벌’, 모래 성분이 많은 갯벌을 ‘모래갯벌’, 그리고 두 종류의 갯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곳을 ‘혼합갯벌’이라고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바다를 풍요롭게 가꾸어 온 귀중한 자연 유산인 갯벌을 너무 등한시 해 왔다. 지난 10년간 무분별한 개발과 간척 사업 때문에 국내 갯벌의 30～40%가 사라졌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안 갯벌이 아예 자취를 감출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갯벌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보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갯벌, 귀중한 자연 유산” (등 유사한 답변)**

**Q. 퇴적물의 조성에 따라 갯벌의 형태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질퍽질퍽한 개흙질이 많은 갯벌을 ‘펄갯벌’, 모래 성분이 많은 갯벌을 ‘이것’, 그리고 두 종류의 갯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곳을 ‘혼합갯벌’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1. 모래갯벌**

**2. 진흙갯벌**

**3. 개흙갯벌**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예비 지문 – Q** 309

우리는 매일 놀이를 하면서 살아간다. 놀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로제 카이와’라는 학자는 놀이가 인간의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쟁’의 속성이다. 어떤 놀이들은 경쟁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들은 달리기로 경쟁하여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놀이를 하거나,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더 많은 점수를 얻으려는 놀이를 한다. 이 경쟁의 속성은 스포츠나 각종 선발시험 등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원리로 변화되어, 사회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운’의 속성이다. 어떤 놀이들은 경쟁이 아닌 운의 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시작할 때, 종종 제비를 뽑아 술래를 결정하곤 한다. 어른들은 경쟁이 아닌 운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내기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권은 운의 속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회 제도이다. 축구 경기가 경쟁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조 추첨을 통한 부전승은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에 영향을 받는 행위여서, 경쟁과 운은 상호 보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흉내’의 속성이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모방 하는 행위를 즐긴다. 유년기의 아이들은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을 흉내 내고, 소년기의 학생들은 급우와 교사의 행동을 모방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모방을 예술의 기본 원리로 파악했고, 배우는 이러한 모방을 전문화한 직업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균형의 파괴 혹은 ‘일탈’의 속성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균형을 고의로 무너뜨리는 상황에 매혹을 느낀다. 가령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의 몸을 공중에 던져 주면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하고, 소년기의 학생들은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일부러 타면서 신체적 경험이 무너지는 현기증을 체험한다. 일탈의 속성 역시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사회 제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나타나곤 한다.

경쟁, 운, 흉내, 일탈은 놀이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형성한 문화의 근간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경쟁하고 운의 논리에 자신을 맡기는 사회 제도를 만들었고, 모방을 통해 예술의 기본 원리를 확립했으며, 신체적 균형과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는 유희와 일탈의 속성을 도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놀이의 관점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때 특정 원리만을 신봉하거나 특정 원리를 배격하지 않아야 한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놀이의 속성, 아이들에게” (등 유사한 답변)**

**A. 본 지문에서 ‘놀이’의 네 가지 속성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경쟁**

**2. 운**

**3. 승리**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예비 지문 – R** 215

대부분 곤충들의 언어처럼 개미의 언어도 기본적으로 화학 언어이다.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가는 개미를 발견하면, 배를 땅에 깐 채 눈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개미의 옆모습을 관찰해 보라. 아마도 개미가 배의 끝 부분을 땅에 끌며 걸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미가 먹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집까지 냄샛길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개미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는 집에 돌아와서 다른 동료를 만나게 되면, 우선 자기가 물고 온 먹이를 시식하게 한다. 그러면 먹이의 맛을 본 다른 일개미들이 곧바로 냄샛길을 따라 먹이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흔적이 남는다는 뜻으로 “개미도 기어간 자취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개미들에게 먹이를 찾아가게 해 보면 어느 분비샘의 페로몬을 따라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개미가 그 페로몬을 합성할 때에 둘 이상의 외분비샘에서 생성된 물질들을 섞어 칵테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개미들은 다른 종류의 개미가 침입하면 즉시 ‘경보 페로몬’을 분비한다. 그러면 이 경보 페로몬을 맡고 순식간에 수많은 일개미들이 사건 현장으로 집결하여 침입자를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그리하면 오래지 않아 침입자는 일개미들에 의해 죽게 된다.

개미들 중에서도 비교적 원시적인 종은 몸짓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먹이를 발견한 곳으로 동료들을 동원할 때, 한 번에 한 마리씩 밖에 데려가지 못한다. 일단 동료 일개미를 만나면 더듬이로 그 동료를 몇 번 두드린 다음, 돌아서서 먼저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동료 일개미는 앞서 가는 개미의 몸에 자기의 몸을 거의 기댄 채로 뒤쫓아간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개미의 화학 언어, 페로몬”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페로몬을 합성할 때에 둘 이상의 ‘이것’에서 생성된 물질들을 섞어 칵테일을 만든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1. 원시적 분비샘**

**2. 외분비샘**

**3. 위험 페로몬**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

**예비 지문 – S** 229

국어나 영어를 살펴보면, 언어는 첫째, 소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냥 소리로 되어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참새가 노래하는 소리나 지하철의 전동차 소리같은 것은 언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곧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언어는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만 하면 될까? 우리가 ‘선생님’이란 소리를 내면, 이것은 틀림없는 언어가 된다. 그러나 ‘바밥밥바’란 소리를 내면, 이것은 언어가 되지 못한다. 둘 다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도, 하나는 언어이고 하나는 언어가 아닌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선생님’이란 음성은 ‘남을 가르치는 분’이란 뜻을 담고 있지만, ‘바밥밥바’라는 음성은 아무 뜻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소리로 되어 있다거나 음성으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학자들은 언어에 있어서 이 음성을 ‘형식’이라 하고, 뜻을 ‘내용’이라 한다.

둘째, 언어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가령, “꽃을 피었다.”와 같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이는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꽃이 피었다.”나 “꽃을 피웠다.”라고 해야 바른 언어가 된다. “어제 가겠다.”와 같은 것도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어제 갔었다.”나 “내일 가겠다.”라고 해야 바른 언어가 된다.

셋째,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즉, ‘남을 가르치는 분’이란 뜻을 나타낼 때엔,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엔 ‘선생님’이란 음성을,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엔 ‘티처’란 음성을 쓰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한 날 한 시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Q. 본 지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A. “언어란” (등 유사한 답변)**

**Q. 본 지문에서 ‘언어’의 특징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언어는 변화한다. ‘어리다’의 뜻이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바뀌는 것 처럼**

**2.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 사이 간의 약속이다. ‘선생님’은‘남을 가르치는 분’이란 뜻을 서로 알기 때문이다.**

**3. 언어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꽃을 피었다”와 같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Q. 본 지문에서 느낀 난이도는 어떠한가? (5점 척도)**

**A. 어렵다 ⬜ - ⬜ - ⬜ - ⬜ - ⬜ 쉽다.**